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노회찬의 죽음

박기순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자살이란 무엇인가?

지난 7월 23일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 자살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한국 진보운동과 함께해 왔던 그의 삶을 알기에 많은 사람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슬퍼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은 ‘꼭 그래야만 했는지’를 물으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다.

사실 일반적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자살’이라는 행위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하

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무릅써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 어찌면 이것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욕구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살은 살아 있는 존재에게는 자기모순적 행위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존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간주되는 인간은 살고자 하는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가?

현상적으로 자살의 형태를 띠고 있는 행위들이 엄밀히 말해 모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견상으로는 자살이지만 실제로는 타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뉴스 매 일같이 장식하는 이러저러한 자살 소식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울해서, 살길이 막막해서, ‘왕따’를 당해서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강제된 선택이다. 살기를 원했지만 최소한의 살아갈 의지마저도 앗아간 이러저러한 환경과 원인 때문에 더 삶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한 것이기에, 최종 행위자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 행위의 진정한 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살은 우연히 칼을 든 손이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로 부르지 않는 행위도 앞에서 말했던 자살적 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는 부와 쾌락과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삶은 황폐해지고, 돌보고 사랑해야 할 많은 것을 잃는다. 이 경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도 죽음의 실제적인 원인은 내가 아니라 외부 원인에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즐거운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즐거운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나를, 나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반대로 나의 삶을 불행에 빠뜨리거나 파괴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은 내가 행복(잘 사는 것, 잘 존재하는 것)을 쾌락적인 삶으로 혼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혼동은 외부의 어떤 것(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쾌락)에 굴복하여 그것을 올바르게(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것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잘못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즉 그것은 자살의 형태를 띠고 있는 타살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살은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자살은 분명 앞에서 언급한 ‘자살의 형태를 띤 타살’과는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경우를 성찰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례 하나가 철학사에 있다.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2. 소크라테스의 자살?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해 재판에서 사형

을 선고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 보면 실제로는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오히려 자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살인 경우와는 정반대로, 타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살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아누토스와 그 주변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 24c, 67쪽). 우선 이 고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령스러운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테네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 구축된 법적, 사회적 질서 자체를 뒤흔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테네인들에게 신은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최종적인 근거이기 때문이다. 사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러한 고발은 사회질서 옹호자들의 관점에서는 단지 중상모략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이 숙고를 통해서 검토된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회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믿음 체계를 뒤흔들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질서의 옹호자들에게는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소크라테스는 주로 아테네의 젊

은이들, 특히 향후 아테네의 정치를 담당하게 될 귀족층의 젊은이들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고발의 또 다른 논점을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고발 때문에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고발의 부당함을 밝히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해 왔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변을 펼치는 과정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내용을 구성한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의 자기 변론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는 배심원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형식상의 실패는 사실상 실패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크라테스는 그 고발로부터 살아남는 것을 자신의 변론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법정에서 고발을 하거나 변론을 할 때,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서로가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법정의 경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말에 힘을 보탬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수사학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사람들에게 연민, 증오, 신뢰, 분개 등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어떤 정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정과 같은 상황에서 설득의 기술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 이 수사학적 기술을 거부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

는 것들, 즉 “들으면 달콤할” 말들을 하거나 “통곡도 하고 비탄도 하면서”(같은 책, 38d, 105쪽)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려는 일을 그는 일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투를 문제 삼지 말고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 여부만을 판단해 주기를 아테네인들에게 요청한다. 오히려 그는 진실을, 자신이 했던 행위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쏟는다. 그렇기에 그의 변론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난후 독후감을 받아 보면, 소크라테스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힐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태도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당시 아테네인들의 판결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유죄판결을 자초한 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는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어떤 “위험 때문에 자유인답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죽는 쪽을 택하겠”다 말한다(같은 책, 38e, 106쪽).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선택, 그의 자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3. 죽은 것과 산 것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동시에 다른 무엇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의 선택으로 살린 것은 철학 자체였다. 그가 고발을 당한 이유이자 그가 평생 동안 해

왔던 것은 아테네인들에게 사유하고 성찰하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다. 그는 부모, 혹은 권위 있는 명망가, 혹은 나라의 법이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성해 보고 따져 보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고발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했던 요구는 다름 아니라 철학적 삶이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은 ‘철학’ 혹은 ‘철학자’에 대한 사회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발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으니 일단은 거짓으로라도 죄를 인정하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소크라테스도 살아남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공직을 맡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로운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가 공직을 맡았다면, 그는 많은 경우 부당한 명령에 반대하고 저항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의 행위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겠지만, 그 때문에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정의를 지키는 것은 항상 올바른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소크라테스는 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의 나이가 칠십이 넘었고, 따라서 살 만큼 살아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이 법정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신이 해 왔던 행위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무로 만듦으로써만 삶을 획득할 수 있다. 생물학적 삶의 연장을 선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하나의 삶(생물학적 삶)을 버림으로써 다른 삶(철학적 삶)을 구원하는 행위다.

그러나 두 개의 삶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살아남아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 사유하고 성찰하기를 요구하는 철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신이 해 왔던, 그리고 다시 하게 될 그 일을 부정하고 그것의 오류를 인정한 사람의 말과 사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이 해 왔던 철학적 삶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그는 그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길, 따라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연인 소크라테스’의 생물학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인류에게 철학이라는 영원히 살아 있는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의 정초자라고 할 수 있다.

4. 노회찬의 선택

우리는 노회찬이 살아온 삶을 알고 있다. 그가 노동자들과 함께 견고 시민들과 촛불을 함께 들었을 때나 특유의 풍자와 유머로 정치 현실을 비판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적어도 그는 많은 사람에게 정의와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의혹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대표해 왔던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쏟아 내지만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부와 명예와 쾌락인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쉽게 '이해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도 그것을 크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일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찬의 그 어리석은 '선택'은 그가 살아왔던 삶 전체와 모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회찬은 법정에서 선 소크라테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가 살아남기를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앞서 수없이 보아 왔던 장면, 이러저러한 부정행위들로 고발당하고 소환되고 변명하고 그런 뒤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에 다시 나타나서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들을 천연덕스럽게 해 대는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하나로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가 대표해 왔던 진보세력은 다른 정치집단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가 속해 있던 정의당은 물론이고, 소위 넓은 의미의 진보세력 전체가, 그들이 만들어 왔던 역사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노회찬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첫 번째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삶과 죽음의 상황,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며칠 동안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고민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죽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고 말했지만, 그의 변론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소크라테스의 선택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짐작케 한다. 거기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나온다. 죽음이 어찌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자신에게 설득한다.

처음에 그는 죽음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무턱대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또한 그는 복수를 하면 자신이 죽을 운명인 줄 알면서도 불의에 응징하기 위해 헥토르를 죽였던 아킬레우스의 영웅적 행위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설득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기도 한다. 나중에는 죽음이 결국에는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한다. 죽음은 무, 즉 아무 것도 아닌 것이거나 영혼이 몸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 어느 것이라도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꿈도 없는 수면 상태이고, 따라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두 번째 경우라면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 거기에 있는 다른 영혼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제시했던 설득의 논변들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변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 그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논변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논변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때 삶이란 무엇인가? 살아간

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유지한다는 의미인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이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성찰하고 검토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러한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앉아 있는 아테네인들에게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라서?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소크라테스의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이란 무엇인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하는 상황, 자신의 삶 전체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절체 절명의 상황,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소크라테스는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성찰과 판단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회찬의 선택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음을 선택했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설득의 지난한 과정이,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생각의 갈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만을 인지할 수 있을 뿐이기에, 그 선택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노회찬은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정의와 진보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한 것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구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는 그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또 다른 수많은 철학자가 이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또 다른 수많은 노회찬을 통해서만 정의와 진보의 가치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